

# 내 배 짜라

(흔외정사 2)

## I. 그녀가 혼절한 이유는

신경 정신과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별의 별 이야기를 다 접하게 된다. 때로 그 아슬아슬한 스토리의 흥미진진함(?)은 늘 그게 그것 같은 TV 드라마나 시원찮은 스릴러 물(物)에 비견(比肩)할 바가 못 된다.

특히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부인의 '레이더망'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짜내는 수법이 나 '냄새가 나는' 남편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인들이 개발한 '추적 장치'들은 개발한 것에서부터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.

돈 많은 바람둥이 남자라면 '유지비'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듯한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절약 차원에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는 대개 상대방에게 다방이나 카페 등을 차리게 해주고 거기에서 죽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. 이럴 때 의견상으로는 투자자와 운영자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면은 내연(內緣)의 관계이다.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오히려 여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.

가정을 가진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 '단지 정 때문에' 관계를 청산하지 못 하는 것 같다. 그들은 상대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 주변의 한 두 친구 정도에게는 미리 고백을 하고 '알리바이 제작'에 동원시키기도 한다. 그들은 상대를 어렵사리 만나게 되니 오히려 '갈증'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으며, 알리바이에 이용하는 친구와 가끔 다투기라도 하면 "니네 신랑한테 다 일러바칠 것이다"라는 격한 말 때문에 불면증과 불안증을 겪는 일도 허다하다.

대부분 그런 불륜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발각된 후에는 보통 "잘 못 했다", "죽을죄를 지었다"라고 하지만 아주 팽팽하게 "그러니 어쩔 거냐?"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.

대개 가족들이 알지 못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 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. 그런 사연들은 워낙 사적(私的)인데다 모두가 다 '남의 불행'인 경우라서 주저리

주저리 글로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.

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말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할 듯 근질거리는 스토리가 한 편 있다. 필자가 아직 수련의 생활을 하던 1986년도에 청량리 뇌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하다 겪은 이야기니 벌써 십 수 년이 지난 이야기이다.

밤 9시가 넘은 시각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장년의 남자가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왔다. 부인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무어라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.

남편은 “아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다.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?”라며 애써 부인의 증상과 그것의 의미를 축소시켜 가려고 애쓰는 듯한 인상이었다.

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남자는,

“저, 제가 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, 그 여자가 소갈머리 없이 집을 찾아왔다지 뭐니까. 뭐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.”

대충 짐작이 가는 스토리의 전형(典型)이 떠올랐다.

잠시 후 정신을 수습한 듯 부인이 “당신은 나가 있으라.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고 의사 선생과 단독으로 면담 하겠다”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다.

그러나 그 부인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보통으로 듣던 러브스토리의 전형이나 단순한 혼외정사의 그렇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다. 그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작원이 저지른 치밀한 공작(工作)이요, 인생을 건 승부사가 건곤일척(乾坤一擲)으로 저질러 놓은 한편의 다큐멘터리였다. 지금이야 사실 더 심한 이야기도 알고 있다. 그렇지만 당시에 별 경험이 없던 필자는 쇼크에 빠졌다.

## II. 그는 모범 가장이었지만

밤은 점점 깊어 갔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은 듯 그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몰두하였다.

그 부부는 결혼한 지 십 년이 조금 더 지났던가 싶다.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건설업자였고

두 아들과 딸을 거느린 사람이었다. 부인이 강조하기를,

“남의 집 남편들은 출장도 가고 외박도 한다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단 하루도 외박한 날이 없는 모범 가장이었다. 게다가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부러워했다”라고 하였다. 그러나 부인이 이렇게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은 놀랍게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남편에게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이 오늘에야 알려진 때문이었다. 그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 이리이러했다.

첫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자기 회사의 경리를 보던 아가씨와 눈이 맞았는데,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딴 곳에 집을 장만하여 들어 앉혀 버린 것이었다. 물론 낮 생활은 본 부인과 자식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다. 그리하는 사이에 그곳에서도 아이가 돌씩이나 태어났다.

당시에 건설업이 호경기라서 그랬는지 원래 돈 많은 사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아침에 옷 갈아입고 출근하여 회사일 잠깐 보고 둘째 부인에게 가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.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또 의젓하게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진짜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였으니까. 그래서 그 남자는 이쪽저쪽 사이좋게 번갈아 가며 다섯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다.

말썽이 난 것은 작은집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‘뿌리’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.

둘째 부인은 “내 청춘은 그랬다 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후레자식을 만들지 않겠노라”며 입적(入籍)을 요구해 왔지만 남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. 결국 화가 치밀 대로 치민 그녀는 본 부인의 집으로 쳐들어 온 것이었다.

“네 남편이 내질러 놓은 새끼들이 돌 더 있다. 호적에 올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?”라고 난리를 쳤다. 거기에는,

“등신 같은 게 지 서방이 낮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눈치조차도 못 챘더라 말이나?”라며 폭언과 비아냥거림을 퍼부은 것이었다. 먼저 난 머리보다 나중 난 뿔이 더 무서운 한 판 승부였다.

진료실에 다시 들어온 남편은 “나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겠다”, “그 여자와 그쪽 자식들도 버릴 수 없다”며 얽치없게도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.

“내 배 짜라. 어쩔 거야?”

양심과는 거리가 먼 '초자아(超自我)의 결손', 두 가정을 꾸리고도 거뜬한 '파워 코리아'같은 자금력, 낮과 밤을 확실하게 구획 짓고 분리시킨 철저한 기획과 탄탄한 구성(構成). 그리고 '비아그라'를 연상시키는 다산(多産)의 화신(化神).

병원에 올 때보다 말도 잘 하고 생기가 도는 듯한 부인의 모습을 확인한 남편은 “집에 가지 않겠다”는 부인의 등을 때다 밀고 뭐라 뭐라 소리치며 총총히 사라져 버렸다. 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.